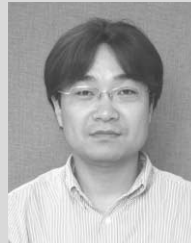


한·미 FTA와 육계산업

앞으로 전개될
한·중, 한·EU
FTA가 더 큰
위협으로 대두



이 일 호 팀장
축산신문사

한·미 FTA가 타결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협상 결과대로 국회비준이 이뤄질 경우 냉장육을 비롯해 냉동 다리 및 기타 절단육, 그리고 가공품은 FTA가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10년, 통닭과 냉동 가슴살과 날개의 경우 12년에 걸쳐 각각 관세가 폐지된다.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닭고기의 경우 그간 협상과정에서 한·미 양측의 입장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계육업계는 이번 한·미 FTA 타결이 어떤 형태로든 국내 닭고기 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매년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저가시장을 중심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산 닭고기의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육계농가를 비롯한 국내 생산자들 사이에 위기감은 극에 달하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한·미 FTA 비준 저지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1. 단기적 측면

다만 닭고기 유통 및 수입업계에서는 이번 한·미 FTA 타결의 단기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국내 축산업계의 입장에서는 FTA 자체가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만큼 어떤 협상결과라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 전품목에 걸쳐 10년 이상의 관세 장기철폐 조건인 만큼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닭고기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닭고기 수출국 패커들과의 협상시에는 10~20% 정도의 내 고가격을 머릿속에 담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관세철폐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 이상 소폭의 관세인하 정도에 거래선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브라질산 닭고기의 위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지난해 총 1만8천1백64톤의 닭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출, 3만8천7백26톤을

한·미 FTA와 육계산업

기록한 미국에 이어 국내 수입닭고기 시장에서 2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4천4백38톤을 수출하며 3천4백16톤에 그친 미국을 제치고 마침내 1위 수출국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미 FTA가 타결됐다고 해도 이 한 가지 요인만으로 국내 시장의 판도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닭고기 수입업체 일각에서는 “브라질축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 닭고기 시장 정도는 언제든 지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수출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모든면에서 미국산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수입업체 관계자는 “국제 닭고기 시장에서 한국시장의 존재는 1% 정도에 불과하다”며 “당분간은 러시아나 일본 등 황금시장을 겨냥한 거대 수출국들의 전략변화가 한국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2. 장기적 측면

그렇다면 관세 철폐시기에 근접할 경우엔 어떨까.

국내산 닭고기의 생산비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미 FTA 타결은 엄청난 위력으로 국내 시장을 압박해 올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아직까지는 국내산 가격이나 미국 및 브라질

패커들의 가격전략에 따라 국내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FTA 발효 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국내산과 수입육과의 가격이 더욱 벌어질 경우엔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를 들자면 지금은 100원의 이익을 보기 위해 3백원의 예상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위험성이 200원이나 150원으로 줄어 든다면 국내 시세로 인한 수입업체들의 고민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국내산과 비교해 가격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내세운 미국산 닭고기의 시장 공략 강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미국에 이어 EU와 중국과의 FTA 체결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까지만 해도 태국과 함께 국내 수입 닭고기 시장을 장악해 온, 국내 계육업계로서는 영원한 위협국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FTA 체결과 함께 중국측이 줄곧 주장해 온 지역단위의 수입 위생조건 요구가 받아들여져 금수조치가 해제 될 경우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 동유럽 국가가 새로운 축산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EU와의 FTA 체결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곧 국내 시장이 닭고기 수출국들의 각축

장으로 전략, 각국의 순위 다름 차원을 벗어나 전체적인 수입량까지 큰 폭으로 증가, 국내산의 입지를 더욱 줄어들게 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당량이 빠있는 상태로 수입, 국내에서의 가공단계가 불가피한 반면 국내시장에서의 고품질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번 FTA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메리트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미 FTA의 여파는 단순히 미국산 닭고기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내 업계는 직시해야만 한다.

이번 협상의 결과가 앞으로 이어질 타국가와의 FTA 협상 기준이 될 것인 만큼 향후 10년 이후 국내 계육산업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거대 닭고기 수출국과의 무한경쟁 돌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K>

한·EU FTA협상 5월 7일 서울서 개시

한국이 5월 6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7일부터 1차 협상에 들어간다.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한 한국이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도 FTA를 맺는다면 중국, 일본에 앞서 세계 1, 2위 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5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EU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EU 회원국들은 이미 지난 4월 2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한·EU FTA 협상 개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맨덜슨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 5월 6일 서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EU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1차 협상은 다음 날인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양측은 서울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을 오가며 연내 5, 6차례 공식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27개 EU 회원국과 동시에 FTA를 맺는 효과를 보게 된다. EU는 인구 4억 9,000만 명에 국내 총생산(GDP·2005년)이 총 13조6,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한국의 대외 교역 규모에서도 EU는 중국(전체의 18.6%·2006년 기준)에 이은 2위(12.5%)로 일본(12.4%) 미국(12.1%),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9.7%) 등을 앞서고 있다.

- 동아일보